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 9월 3일(일) 총 4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공보담당관실	담당자	김지형 ☎440-5461 권성희 ☎440-5462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포도, 더 달고(Brix 18.0) 더 새콤(pH 3.3)하다.

- 보건환경연구원, 강화포도 우수성 증명 -

- 향암·향염·향노화 기능 있는 레스베라트롤 함량도 타 품종에 비해 높아 -

- 레스베라트롤 함유량 높여, 기능 성분 강화 포도송이가지차 개발 제안 -

강화섬포도가 타 품종 포도에 비해 더 달고 새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강화섬포도의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 결과 강화섬포도가 타 품종 포도에 비해 당도와 산도가 높아 새콤달콤한 맛의 특징을 가지며 향암·향염·향노화 기능 있는 레스베라트롤 함량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천시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강화섬포도의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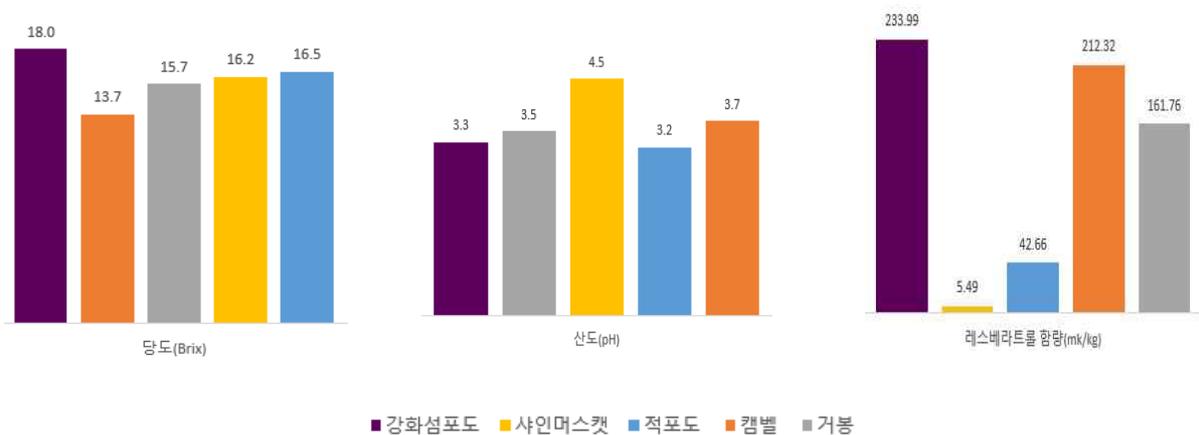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봉포도와 샤인머스켓, 적포도, 캠벨포도를 비교

군으로 올해 8월 중 수확된 강화섬포도의 당도와 산도,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당도는 타 품종에 비해 1.5~4.3Brix, 산도는 0.2~1.0 높게 나타났다.

레스베라트롤 함유량도 다른 품종의 포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포도 1kg당 강화섬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함유량은 233.99mg으로 일반 캠벨포도(212.32mg)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봉포도(161.76mg)보다는 약 1.4배, 적포도(42.66mg)보다 약 5.5배, 샤인머스켓(5.49mg)보다는 약 42.6배나 높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에 있는 주요 페놀화합물로 항암·항염·항노화 기능이 있으며,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섬포도의 우수성을 확인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강화섬포도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능성을 강화한 차 제품 개발을 목표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 특허출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강화섬포도(캠벨얼리 종)는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으로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다. 해풍을 맞고 성숙해 조식이 치밀하고 단단해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맛과 향기가 진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가림재배와 잡초를 나지 않게 하는 부직포 설치 등 뛰어난 재배 기술이 더해져 만들어 낸 최고 품질의 포도다.

재배면적은 120ha로, 약 300여 농가가 포도 농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1,957톤, 94억 7,500만 원을 기록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강화섬포도는 9월 말 추석 전까지 강화 주요 도로변과 포도밭 인근 직거래 판매장 등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